

# 3인칭대명사 ‘그’에 관한 소고\*

박재희\*\*

## || 차례 ||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국어 3인칭대명사의 특징
- IV. 서사체 서술 방식의 변환과 ‘그’의 선택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3인칭대명사로 쓰이는 ‘그’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20세기 초에 김동인을 비롯한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그’를 3인칭대명사로 쓰게 되면서 ‘그’가 3인칭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인칭대명사가 문법 범주에 가깝다는 점과 폐쇄류(closed-class)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그’가 3인칭대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일개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20세기 초 언중들의 필요와 동의에 따라 선택되어진 결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지시대명사 ‘이, 그, 더(현대 국어 ‘저’)' 중에서 ‘그’가 20세기 들어 인칭대명사로 선택된 까닭을 (i)한국어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어휘들의 특성과 (ii)개화기에 나타난 서사체 서술 방식의 변화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한국어에서 대명사는 화맥적 상황(화자와 청자가 전제된 상황)과 문맥적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문 서사체 서술 방식이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라’ 종결어미 문장에서

---

\* 이 글은 2014년 11월에 개최된 한민족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안귀남 선생님과 논문 완성을 위해 조언을 주신 김미형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사건 서술 중심이 ‘-다’ 종결어미 문장으로 변환되었고, 이에 따라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3인칭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15세기 이래로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한 서사체 서술 방식에서 3인칭대명사로 쓰여 왔던 ‘이, 그, 저’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그’가 선택되어 언중들의 동의를 얻어 현대 국어에서 3인칭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 ‘그’, ‘이, 그, 저’, 3인칭대명사, 언중, 문맥적 상황, 화맥적 상황, 서술 방식, 현대 국어

## I. 머리말

범언어적으로 3인칭대명사는 지시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를 대신하는 1인칭대명사 그리고 2인칭대명사와는 구별된다(Lyons 1977, Bhat 2004). 그런데 국어의 3인칭대명사인 ‘그’는 이 같은 본질적인 차이 이외에도 그 쓰임과 기원에 있어서 다른 인칭대명사와 구별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이기문 1978, 김형철 1981, 박진호 2007, 안소진 2008, 김미형 2012 등). 1인칭대명사인 ‘나’와 2인칭대명사인 ‘너’가 구어와 문어에 두루 쓰이는 데 반해 3인칭대명사인 ‘그’는 주로 소설, 신문 등과 같은 문어 텍스트에서만 쓰인다는 것이 그것이다(안소진 2008 등).

한편, 기원에 있어서도 3인칭대명사 ‘그’는 1인칭대명사 ‘나’와 2인칭대명사 ‘너’와는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인데, 선행 연구(이기문 1978, 김형철 1981, 박현수 2002 등)에 따르면 20세기 초에 김동인을 비롯한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그’를 3인칭대명사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연유로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국어학적 측면에서 검토되

기보다는 근대 소설 문체의 확립과 관련하여 문학사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박현수 2002, 손성준 2014 등). 그러나 각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He와 She에 해당되는 조선말조차 없었다”라는 김동인의 언급을 고려해 볼 때,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은 문학사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하겠지만 3인칭대명사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단어가 새롭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국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품사로 분류하고 있는 대명사는 다른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과는 달리 어휘 범주(lexical category)에 속하지 않고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 수의 증감이 쉽게 변하지 않는 폐쇄류(closed-class)에 포함된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대명사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인칭대명사도 이 같은 대명사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단순한 어휘가 아닌 문법 범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3인칭대명사가 소수의 작가들 또는 김동인이라는 개인에 의해 특정한 어형이 선택되어 고정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법 범주에 가깝고 폐쇄류에 속하는 인칭대명사는 언중의 동의와 요구에 의해 선택되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 안소진(2008: 156)에 따르면 김동인은 1948년~1949년에 걸쳐 <신천지>에 연재했던 “文壇 30年の 자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말에는 없는 바의 He며 She가 큰 난관이었다. 소설을 쓰는데,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매번 김 아무개면 김 아무개, 최 아무개면 최 아무개라고 이름을 쓰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여서, 무슨 적당한 어휘가 있으면 쓰고 싶지만 불행히 우리말에는 He며 She에 맞을 만한 적당한 어휘가 없었다. He She를 몰아(性的) 구별은 없애고) ‘그’라는 어휘로 대응한 것 - ‘그’가 보편화하고 상식화한 오늘에 있어서 따지자면 아무 신통하고 신기한 것이 없지만, 이를 처음 쓸 때는 막대한 주저와 용단과 고심이 있었다.” (김동인, “文壇 30年の 자취”, 金治弘 編著(1984: 424))

일찍이 이기문(1978), 김형철(1981) 등은 20세기 초에 ‘그’의 형태가 왜 3인칭 대명사로 고정화 되었는지, 즉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에 대해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들의 논의가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을 국어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 점은 분명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기원을 김동인 개인 또는 몇몇 작가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이기문(1978), 김형철(1981) 등의 연구 이후로는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된 원인을 다룬 논의가 특별히 없었다는 점도 안타깝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도 이기문(1978), 김형철(1981) 등이 제기했던 의문, 즉 왜 ‘그’의 형태가 20세기 초에 3인칭대명사로 고정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된 계기를 일개인의 노력이 아닌 개화기 언중들의 3인칭대명사에 대한 필요와 동의에 따른 결과에서 찾고자 한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9세기 말의 사회관과 세계관의 확대로 나타난 호칭어의 변화, 근·현대 시기의 언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서사체 서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 ‘그’가 3인칭대명사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제안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검토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된 현상을 어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이기문(1978)부터이다. 이기문(1978: 332-334)은 3인칭대명사라는 범주로 특정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고 지시대명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언어의 예를 들며 범언어적으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도 이 같은 언어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지시대명사가 3인칭대명사를 대신하고 있음은 중세 국어에서

지시대명사인 ‘더(현대 국어 ‘저’에 해당함)’가 3인칭대명사로 쓰인 흔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시대명사 ‘이(근칭), 그(중칭), 더(원칭)’ 중에서 화자에 가까운 근칭과 청자에 가까운 중칭을 제외하고 화자와 청자로부터 가장 먼 곳을 가리키는 원칭, 즉 ‘더’가 3인칭으로 전용되기 가장 적합하였고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는 ‘더’가 3인칭대명사로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3인칭대명사로 쓰인 ‘더’에 해당되는 ‘저’가 더 이상 3인칭대명사로 쓰이지 않고 있다. 20세기 이후 현대 국어에서는 3인칭대명사의 역할은 ‘그’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기문(1978)의 주된 관심은 중세 국어부터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지시대명사 ‘더’가 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3인칭으로 ‘그’로 교체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기문(1978)은 이에 대해 재귀대명사로 쓰였던 ‘저’ 그리고 겸양의 1인칭대명사인 ‘저’의 쓰임이 확대되면서 본래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했던 ‘더(현대 국어 ‘저’)'와의 동음 현상을 피하기 위해 20세기 초엽에 김동인, 이광수와 같은 문인들이 ‘그’를 ‘저’ 대신에 3인칭으로 선택하여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형철(1981)도 이기문(1978)과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 시기부터 ‘더’가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김형철(1981)은 중세 국어의 지시대명사였던 ‘더’는 본래 지시성과 인칭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로 모두 쓰일 수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 국어에 와서는 각각 자질에 따라 지시성을 지닌 ‘저’와 인칭성을 지닌 ‘그’로 분화되어 3인칭대명사로 ‘그’만 쓰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형철(1981)의 설명은 이기문(1978)의 설명과 차이를 보이지만, 3인칭대명사로서의 ‘그’의 기원을 20세기 초기

에 김동인, 이광수 등의 작가들이 ‘그’를 3인칭대명사로 쓰기 시작하면서라고 보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3인칭대명사 ‘그’와 관련된 이기문(1978)과 김형철(1981)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가. 중세 국어에는 지시대명사 ‘더(현대 국어 저)’가 3인칭대명사로 쓰였다.

나. 현대 국어에 와서 ‘더’를 대신하여 지시대명사 ‘그’가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다.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은 20세기 초에 김동인, 이광수를 비롯한 작가들이 작품에 ‘그’를 3인칭대명사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위에 요약한 (1)의 설명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세 국어에 3인칭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시대명사 ‘더’만이 3인칭대명사로 쓰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인 ‘이, 그’는 3인칭대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 이미 3인칭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단어들이 존재하였고, 지시대명사 ‘더’뿐만 아니라 ‘이, 그’ 등도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논의들도 활발히 개진되어 왔다(유창돈 1978, 양영희 2006, 김성남 2006, 김미형 2012 등). 양영희(2006), 김성남(2006) 등은 지시대명사 ‘더’뿐만 아니라 ‘이, 그’도 중세 국어부터 지속적으로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3인칭대명사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도 20세기에 와서 갑작스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세국어 시기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2)와 (3)에 밑줄 친 단어들은 3인칭대명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 가. 그뻘 如來 三昧로써 나거시닐 彌勒菩薩이 모든 므스미 疑心을 보며 **즈개**도 모르샤 座에 니러 부텃 알피 나샤 드르샤 禮數호습고 술넛 샤디 (석상 11, 17ㄱ)

나. (문수사리가 대중에게) 그뻘 四部 神通力 나토샤몰 보습고 그 므스미 다 歡喜호야 각각 **제** 서르 무로디 (법화1, 120ㄱ)

(양영희 2006: 87)

(3) 가. (왕이 존자에게) **데** 엇던 功德을 뒷터신고 (석상 24, 37ㄴ)

나. (A가 B에게) 아츰미 지비 손 오나날 **그**를 더접호야 보내오 ㄱ 오라 (변박 상 64ㄴ)

다. (존자가 왕에게) **이**는 부텃 侍奉이러시니 多聞이 第一이시고 부텃 經을 밍ᄃ라시니이다. (석24, 40ㄴ)

(양영희 2006: 87)

양영희(2006, 87-88)에 따르면, (2)의 ‘즈개, 제’ 등은 서술어로 표현된 상태나 동작의 주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이들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실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앞서 이름으로 표현된 대상을 지시·대응한다는 점에서 대명사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또한 (3)에서 ‘더, 그, 이’ 등도 문맥상 앞서 나온 사람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지시대명사가 아닌 3인칭대명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의 예들을 제시하며 양영희(2006)는 (2)의 ‘즈개, 제’<sup>2)</sup> 등은 3인칭을 지칭하는 재귀대명사로, 그리고 (3)의 ‘더, 그, 이’ 등은 3인칭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로 분류하고 있다. 실

2) ‘즈개, 제’ 등은 현대 국어의 재귀대명사 ‘자기’로 이해된다. ‘자기’와 조응하는 대상이 3인칭으로 한정되는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양영희(2006)는 ‘즈개, 제’ 등이 3인칭인 대상과만 조응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3인칭대명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 ‘자기’는 주로 3인칭의 선행사와 조응 관계를 이루는 점은 분명하다.

제로 위에 제시된 예문들을 고려할 때, 양영희(2006), 김성남(2006) 등의 주장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남(2006), 김미형(2012) 등은 중세 국어에서뿐만 아니라 근대 국어 시기(17세기부터 19세기)에도 ‘이, 그, 더’는 지속적으로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4) 가. 이노 복의 징조 | 아니오 화의 괴들이니 오날로 붓터 우구혀여  
 <한중록 34>

나. 그노 아모리 햏야도 보채는 곡절을 햏야기 순히 되얏지 그리아니  
 코는 홀연이 어이 이어를 햏오시며 <한중록 214>

(김성남 2006:87)

김성남(2006)은 (4)에서 밑줄 친 ‘이, 그’가 문맥상 앞에 언급된 사람을 지시하므로 모두 3인칭대명사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성남(2006: 89)은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양현문적절기>에 ‘그녀’라는 형태가 등장함을 들어 3인칭대명사인 ‘그녀’의 출현이 현대 국어 이전 시기에 이미 그 형태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3나)와 (4나)에 제시된 예문을 보면, 중세 국어에 이미 3인칭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하였고, 또한 ‘그’의 형태도 중세 국어 시기부터 이미 3인칭대명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양영희(2006), 김성남(2006) 등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현대 국어에서 3인칭대명사로 ‘그’를 쓰고 있는 것은 20세기 초에 ‘더’를 ‘그’로 바꿔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 시기부터 사용되어 왔던 ‘그’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양영희(2006), 김성남(2006)의 논의가 타당성이 분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 제안을 되짚어보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양영희(2006), 김성남(2006)의 주장대로 ‘더’뿐만 아니라 ‘이, 그’도 중세 국어에 이미 3인칭대명사로 쓰인 것이 분명한데 왜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와 ‘더(저)’는 더 이상 3인칭대명사로 쓰이지 못하고 ‘그’만이 3인칭대명사로 고정되어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은 현대 국어에 와서라는 주장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박진호 2007, 안소진 2008 등)<sup>3)</sup>.

지금까지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i)대명사의 하위 범주인 3인칭대명사는 중세 국어에 이미 존재했고 ‘더(현대국어 저)’뿐만 아니라 ‘이, 그’도 함께 3인칭대명사로 쓰였다는 주장과 (ii)중세 국어에는 3인칭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대신해 지시대명사 ‘더’가 그 역할을 수행하다가 20세기 들어서면서 ‘그’가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구분된다. 두 주장은 타당성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또한 한계도 명확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시대명사 ‘이, 그, 더’ 모두 중세 국어 시기부터 3인칭대명사로 쓰였다고 주장은 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만이 3인칭대명사로 고정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며, 중세 국어 시기에는 3인칭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지시대명사인 ‘더’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가 20세기부터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였다는 주장도 (3)과 (4)의 예와 같이 중세

3) 박진호(2007: 119-120)는 “현대 한국어에 3인칭 대명사로 간주되는 ‘그’와 ‘그녀’가 있지만, 이들은 20세기에 들어와 만들어진 단어이며…중세 한국어에는 ‘더’가 3인칭 대명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한문 원문의 ‘彼’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국어 시기에 ‘이, 그, 저’ 모두 3인칭대명사로 쓰인 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Ⅲ. 국어 3인칭대명사의 특징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 연구에서는 3인칭대명사 ‘그’의 기원과 관련하여 중세 국어 시기부터 3인칭대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견해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다는 견해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로 다른 견해가 제기되어 온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본고에서는 (i)한국어 3인칭대명사에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과 (ii)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3인칭대명사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해 국어 3인칭대명사의 기원, 설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국어에서 3인칭대명사에 포함되는 어휘는 ‘그, 그녀’뿐만 아니라 ‘그이, 이이, 저이, 그분, 이분, 저분…’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그 수를 정확히 몇 개라고 한정지어 말하기 어렵다<sup>4)</sup>. 이처럼 3인칭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는 어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어적 환경에서나 문어적 표현에서 대명사 사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3인칭대명사가 쓰여야 하는 환경에서도 조차도 위에 언급된 대명사를 쓰기 보다는 (i)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명사(의존명사)로 구성된 명사구<sup>5)</sup>, (ii)명사 단독 그리고 (iii)복합어(선생+님, 영수+씨 등) 등 다양한

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462개의 표제어를 대명사로 분류한 것을 보면(정호성 2000), 대명사라는 품사에 포함되는 어휘를 선정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어형과 구의 형태가 대명사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어 대명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국어 3인칭대명사의 문법적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고정된 어형만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성만을 파악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이, 그, 저’ 등의 형태가 인칭대명사로 쓰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에 앞서 3인칭대명사라는 범주를 규정할 수 있는 자질 또는 속성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고 이러한 속성들이 3인칭대명사를 규정함에 있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명사는 (i)어떤 대상이나 인물을 가리키는 지시성, (ii)지시 대상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성, 그리고 (iii)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대신할 수 있는 범용성의 자질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 (5) 가. 영숙이는 천재다./ 커피는 김선생님께서 좋아하셔.  
 나. 이것은 어제 내가 산 책이다. / 재가 제 친구예요.  
 다. 윤영상씨는 K 주식회사 상무로 그는 일찍부터 사업 수완이 좋았다.  
 라. 철수는 자기의 옷을 영철이에게 주었다.

(5)에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지시성, 즉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5가)의 고유명사 ‘영숙이’와 ‘김선생님’은 ‘영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실존 인물과 선생님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김씨 성을 갖고 있는 실존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5나)에서 ‘이것’은 화자와 청자가 현장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지시체를 그리고 ‘재’는 ‘저 아이’의 준말로써 역시 화자와

---

5) 김미형(1995)는 지시관형사와 명사의 결합형으로 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구성을 “지시사 통합형”이라 칭하고 있다.

청자의 직접적 가시권에 있는 인물을 가리킨다. (5다)에서 ‘그’는 문장에서 나온 ‘윤영상씨’를 가리키며 (5라)의 ‘자기’ 역시 앞에 언급된 철수를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5)의 밑줄 친 말들은 실제 존재하는 또는 문장에 선행하는 대상이나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지시성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대명사라는 품사 범주를 규정하는 중요한 자질로서 역할을 한다.

그런데 (5가)의 ‘영숙’이나 ‘김선생님’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대명사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대명사로 분류되는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인 범용성이라는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가)의 ‘영숙’, ‘김선생님’은 실존하는 인물인 지시 대상(지시체)과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다<sup>6)</sup>. 즉 ‘미숙’이라는 실존 인물을 ‘영숙’이라는 단어로 지칭할 수 없고, ‘이선생님’이라는 실존 인물을 ‘김선생님’이라고 단어로 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5나), (5다), (5라)의 밑줄 친 ‘이것, 재, 그, 자기’ 등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시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이처럼 대명사는 하나의 고정된 지시 대상을 가리키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적 제약 없이 상황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을 달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범용성이라고 하며 대명사로 분류되는 단어들이 지닌 속성의 하나로 여겨진다.

지시성, 범용성 그리고 다른 지시체를 대신하는 자질인 대응성은 대명사라는 품사 범주를 규정하는 자질이다. 이들 자질을 고려할 때, (5나), (5다),

6) 심사위원으로부터 (5)에서 ‘영숙’, ‘김선생님’이 지시성과 함께 대응성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지시체와 이들 단어 간에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음을 통해 대응성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고유명사와 일반명사가 이처럼 대명사의 자질을 갖는 것은 한국어 대명사와 관련한 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5라)의 ‘이것, 재, 그, 자기’ 등을 대명사로 분류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5나)의 ‘이것, 재’와 (5다), (5라)의 ‘그, 자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나)의 ‘이것, 재’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된 상황, 즉 담화 상에서 3인칭을 지칭하고 있는 반면에 (5다)의 ‘그’와 ‘자기’는 담화의 상황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5나)에서 ‘이것’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지시 대상이 화자 그리고 청자와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는 경우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지시 대상이 화자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고 청자에게는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다면 ‘이것’ 대신에 ‘그것’을 사용하였을 것이며,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서 멀리 떨어진 위치에 놓여 있다면 ‘이것, 그것’ 대신에 ‘저것’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올바른 문장이 될 것이다. 또한 ‘재’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위치에 따라 ‘애, 개’ 등으로 차별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5다)와 (5라)의 ‘그, 자기’는 지시 대상과 화자 또는 청자 간의 근접성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5나)의 ‘이것, 재’ 등은 담화 상황에서 지시 대상을 대신하는 대명사인 반면에 (5다)의 ‘그’와 (5라)의 ‘자기’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시 대상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담화가 전제된 상황에서 지시 대상을 대신하는 대명사에는 ‘이이, 그이, 저이, 이분, 그분, 저분, 이것, 저것, 그것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대명사의 단어 구조를 분석해 보면 모두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명사 또는 의존명사가 결합된 형태로 김미형(1995)에서 언급된 “지시사 통합형”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담화가 전제되지 않아도 쓰일 수 있는 대명사는 (5다) ‘그’와 (5라) ‘자기’ 있는데, 이들 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자기’는 동일한 문장 안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반면에 ‘그’는 문장 안의 지시 대상 이외에도 문장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대상도 가리킬 수 있다. 아래 (6)을 살펴보자.

(6) 가. 자기<sub>i/aj</sub>를 속이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철수<sub>i</sub>는 그 일을 포기하기로 했다.

나. 그<sub>i/j</sub>를 속이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철수<sub>i</sub>는 그 일을 포기하기로 했다.

(6가)에서 ‘자기’는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지시 대상인 ‘철수’만을 가리킬 수 있다. 반면 (6나)에서 ‘그’는 문장 안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지시 대상인 ‘철수’를 가리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장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선행하는 대상(antecedent)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성질을 재귀성이라고 하는데, (6가)의 ‘자기’는 재귀성을 항상 갖는다고 하여 재귀대명사로 분류한다. 따라서 (6가)의 ‘자기’와 (6나)의 ‘그’를 비교해 볼 때, 재귀성을 지닌 ‘자기’가 ‘그’에 비해 보다 문장, 즉 문맥적 상황에 의존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대명사의 속성을 지니거나 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과 구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에서 논의한 대명사류인 ‘이것, 재, 그, 자기’ 등은 반드시 담화 상황에서만 쓰이거나 문어적 환경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상황과 환경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안소진(2008)은 현대 국어에서 3인칭대명사인 ‘그’가 문어적 환경에서만 쓰인다고 하였지만, 담화 상황에서도 ‘그’가 쓰였다고 하여 반드시 비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국어에서는 화맥적 상황(담화 상황)과 문맥적 상황(문어적 환경)에 따라 대명사를 구분하여 써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화맥적 상황과 문맥적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어 대명사는 화맥적 상황과 문맥적 상황의 친밀도에 따라 아래 (7)과 같이 하나의 연속체(continuum)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화맥적 상황 <-----> 문맥적 상황  
 ‘이것, 재’ >> ‘그’ >> ‘자기’

국어에서는 (7)과 같이 대명사가 화맥적 상황과 문맥적 상황의 친밀도에 따라 그 쓰임이 상대적이다 보니 소위 “지시사 통합형”, 지시성을 지닌 이름, 친족어, 직업 등의 호칭어가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8) 저희 어머니는 올해 마흔 두 살이십니다. 어머니의 고향은 강원도의 한 소읍인데, 어머니는 아홉 살 때까지만 거기서 사시고 그 이후에는 줄곧 서울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익섭·채완 1999: 151, 안소진 2008 재인용)

(8)에서 ‘어머니’는 실존하는 인물을 지시하므로 지시성을 갖고 있는 명사이다. 그러나 ‘어머니’라는 단어가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밑줄 친 ‘어머니’는 앞 말에 선행하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대명사와 같은 대용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어 대명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명사의 특징이 이번 장 서두에 언급한 두 가지 견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화맥적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므로 지시 대상을 언급할 때 화자/청자와 지시 대상 간의 위치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화맥적 상황에서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의존 명사 또는 명사가 결합된 “지시사 통합형”이 사용되기 쉽다. 반면 문맥적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지 않

는다. 따라서 지시관형사 ‘이, 그, 저’ 등이 나타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애, 개, 제’ 등이 구어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문맥적 상황에서는 쓰기 어려운 점도 이 같은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중세 국어 시기부터 이미 3인칭대명사가 존재하였고 ‘이, 그, 더’가 모두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견해(양영희 2006, 김성남 2006 등)는 화맥적 상황에서 ‘이, 그, 더’가 3인칭의 지시 대상을 대용하는 역할을 할 때, 이들 ‘이, 그, 더’를 3인칭대명사로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3인칭대명사가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견해(이기문 1978, 김형철 1978, 고영근 1988, 안병희·이광호 1992, 박진호 2007 등)는 화맥적 상황이 아닌 문맥적 상황에서 3인칭 지시 대상을 대용할 수 있는 어휘를 3인칭대명사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화맥적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3인칭을 지시하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 등이 포함된 어형을 대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반면에 문맥적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문장에서 3인칭을 지시할 수 있는 어형만을 대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영희(2006), 김성남(2006) 등이 3인칭대명사가 중세 국어부터 존재하였고 지시대명사 ‘이, 그, 더’ 모두 3인칭대명사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화맥적 상황에서 3인칭대명사로 쓰이는 어형들을 모두 대명사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김동인과 같이 20세기 초기에 자신들의 작품에 ‘그’를 3인칭대명사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다고 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화맥적 상황이 아니라 문맥적 상황에서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어형만을 대명사로 정의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 싶다.

본고에서는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 더(저)’ 등이 배제되고 ‘그’만이 3인칭대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일개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 것



이 아니라 20세기 초에 문맥적 상황에서 3인칭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 고정된 어형이 요구됐고 언중들의 합의에 의해 지시대명사 ‘이, 그, 더’ 중에서 ‘그’가 선택되어진 것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 IV. 서사체 서술 방식의 변환과 ‘그’의 선택

시대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도 이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일반적으로 개화기부터 일제 강점기 초까지 한국어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서양 문물이 일반 대중에게도 소개되었고 언어생활에서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하를 구분하는 신분 질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호칭어 사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성경을 비롯한 서양서의 번역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문체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텍스트를 기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언어 환경에 있어서도 이전 시기에는 크게 필요치 않았던 문맥적 상황에서 고정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3인칭대명사가 요구되게 되었다.

그럼 ‘이, 그, 더(저)’ 중에서 3인칭대명사로 ‘그’가 선택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개화기에 나타난 문체의 변화라고 하겠다. 즉 서사체 서술 양식의 변화가 개화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가 종결어미의 변화(‘-라/-다’ 형의 공존에서 ‘-다’형으로 고착됨)과 함께 ‘그’가 3인칭대명사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김미형(1997), 정은균(2009)에 따르면, 중세 국어에는 국문 서사체 서술 지문의 종결 어미는 ‘-라’와 ‘-다’가 공존하였다. 특히 ‘-라/-이라?’는 훈민정음 창제 시부터 선호됐던 문장 종결형으로 20세기 초엽까지 지속되었다

한다(김미형 1997: 9). 그런데 ‘-라’ 종결어미와 ‘-다’ 종결어미가 쓰였을 때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화자의 존재 유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다.

- (9) 分殷生을 여희여 人天供養에 맞당흐며 無明 도즈글 주기니를 일후미  
 阿羅漢이라 (이 문장의 원문의 “難分殷生호야 應人天供흐며 殺無明  
 賊을 名阿羅漢이라”를 번역한 것) <능엄경언해> (1457)  
 (김미형 1997: 9)

김미형(1997: 9-10)은 위의 <능엄경언해>에서 종결어미 ‘-라’가 쓰임으로써 “화자가 단지 객관적인 위치에서 청자에게 어떤 내용을 제시하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고 만약 ‘-라’ 대신에 종결어미 ‘-다’가 쓰이게 되면, “구결의 기능을 잘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곧 ‘-라’는 문장의 명제부와 독립된 상위 술어로서 기능하고, ‘-다’는 그 문장의 주어와 바로 연결되는 술어”라고 하였다. 김미형(1997: 9-10)은 “이런 성격으로 인해 ‘-이라’는 화자의 목소리로 독립되어 들리는 듯하고, ‘-다’는 문장 내의 내용과 긴밀하게 걸리는 술어로 이해되는 듯하다”고 하였고, 이 같은 종결어미 ‘-라’와 ‘-다’의 차이를 아래 (10)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 (10) 가. <殺無明賊을 ----- 名阿羅漢> ----- 이라  
 나. <殺無明賊을 ----- 名阿羅漢이다>

김미형(1997), 정은균(2009)에서 지적한 ‘-라’형 종결어미가 사용된 문장과 ‘-다’형 종결어미가 사용된 문장에서의 차이는 나타나는데, 이는 구체

---

7) 지정사 ‘이다’와 ‘-라’의 결합형

적으로 (i) (10가)에서처럼 ‘-라’형 종결어미를 써서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를 설명해 주는 방식과 (ii) (10나)에서처럼 문장을 내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 두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던 국문 서사체 기술 방식은 근대 그리고 개화기를 거치면서 ‘-라’형은 점차로 줄어들고 ‘-다’형의 사용이 늘어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정은균 2009: 83). 이러한 변화는 곧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서사체 기술 방식에서 문장에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서사체 기술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같은 서사체 기술 방식의 전환은 또한 3인칭대명사에 대한 인식도 바꾸어 놓게 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화맥적 상황(화자와 청자가 전제된 상황)에서는 ‘이, 그, 저’ 또는 “지시사 통합형”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지만 문맥적 상황에서는 이 같은 ‘이, 그, 저’나 “지시사 통합형”이 쓰이기 어렵다. 즉 3인칭 대상을 청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화맥적 상황에서는 3인칭 대상의 위치가 언어 표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지만 문맥적 상황에서는 3인칭 대상의 위치가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1) a. 김진스 이 소문을 듯고 허씨집 긴흔 문객 흐니를 친흐니 이 슴은  
김양쥬라 하논지라 위인이 이침쇼인으로 <彩鳳感別曲 제4회>

(정은균 2009: 96)

- b. 그노 유단홀 일은 업스오리 <첩해신어 1.9π>

(김미형 2012: 131)

(11a)에서 ‘이 슴’은 3인칭 대상을 지칭하는 “지시사 통합형”으로 ‘김양쥬’라는 실존하는 인물을 지칭하며 청자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11a)의 문장에서 종결어미를 살펴보면 ‘-라’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가 전제된 상황인 화맥적 상황에서는 ‘이, 그, 더’ 등을 사용해 화자와 청자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가 3인칭대명사로서 지위를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을 고려해 보면, ‘그’가 3인칭대명사의 지위를 확고히 한 것은 좀 더 이전 시기인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인 개화기인 것으로 보인다. 개화기의 문헌 중에서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지 않은 서사체 기술 방식에서 ‘그’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근대 소설에서 ‘그’가 3인칭대명사로 자주 쓰이게 된다. 이는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약한者の 슬픔>의 원문을 검토해 보면 김동인의 주장과 같이 ‘그’가 3인칭 명사를 대신하여 쓰인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家庭教師 姜엘니자벳드는 가르침을 쫓내인 다음에 自己방으로 도라왔다. 도라오기는 하엿지만 이젿것 快活한 兒孩들과 마조 유쾌히 지난 그는 썸썸하고 갑갑한 自己방에 도라와서는...”

(『약한者の 슬픔』, 『창조』1권: 55)

위 예문은 <약한者の 슬픔>의 첫머리로, 두 번째 문장에 ‘그’가 쓰이고 있다. 여기서 ‘그’는 선행하는 3인칭인 ‘姜엘니자벳드’를 지시·대용하고 있다. 김동인의 주장대로 ‘그’가 3인칭대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한편 성경번역서, 신문 등 김동인이 소설을 발표되기 이전에도 이미 ‘그’가 3인칭 대명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김동인은 “文壇 30年の 자취”에서 “3인칭인 ‘저’라는 것이 옳을 것 같지만 조선말에 ‘그’라는 어휘가 어감으로건 관습으로건 도리어 근사하였다. 예수교의 성경에도 ‘그’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간간히 사용되었다. 그래서 눈 꼭 감고 ‘그’라는 대명사를 써버렸다.”라고 하였다.

“미국 친구 피어스씨가 거월에 유람츠로 대만에 왔는데 그가 작년에 미국과 서반아 두 나라이 싸움 할 때에 즈원병 자원병으로 참예한 고로 일전에 비지 학당에서 그 스상을 연설 하였다는디...”

<독립신문> 1899년 11월 21일

위의 독립신문의 기사는 말하는 이, 즉 화자가 글에 전면에서 나서는 않고 미국 친구 ‘피어스씨’에 관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구술의 방식이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문맥적 상황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명사 사용의 예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3인칭 대상인 ‘미국 친구 피어스씨’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김동인이 본격적으로 소설에 ‘그’를 3인칭대명사로 사용하기 이전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즉 개화기 시기부터 ‘그’가 이미 3인칭대명사로 본격적으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왜 중세 국어에 3인칭대명사로 쓰였던 ‘더’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에 ‘그’로 변환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이, 그, 더’ 등이 모두 3인칭 대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국문 서사체 서술 방식이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방식, 즉 ‘-라’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화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문 서사체 서술 방식이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방식에서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 즉 ‘-다’형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화맥적 상황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쓰이는 ‘이, 그, 더’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것이다.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한 서사체 서술 방식에서는 3인칭대명사로 ‘더’가 적합하였겠지만,

화자와 청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서사체 서술 방식에서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더’를 통해 3인칭 대상을 지칭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해 언중들은 지시대명사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그’를 택해 3인칭대명사로 쓰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 V. 맺음말

개화기는 서구 문물이 급격하게 유입되고 조선인들의 세계관과 사회관이 급속도로 변화한 시기로, 문화적 환경도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신문의 발행(독립신문), 새로운 문학 장르의 등장, 서구 번역서의 소개, 국문 사용의 확대, 식자층의 증가, 새로운 문체와 기술 양식의 등장, 사회 변동에 따른 호칭어의 변화 등 언어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도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특히 본고에서 주목한 점은 ‘그’를 3인칭대명사로 본격적으로 사용한 된 기원을 따져 보는 것이었다.

신문, 성경 번역서, 소설 등은 앞선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사체 기술 방식을 요구하는 출판물이었다. 즉 개화기 이전 시기에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가 된 서사체 기술 방식이 주된 글쓰기 방식이었지만,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 방식이 점차로 일반화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서사체 서술 방식의 변화가 3인칭대명사의 ‘그’의 출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개화기 작가들은 새로운 글쓰기 양식인 화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3인칭 지시체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이, 그, 더’ 대신에 ‘그’를 선택하여 쓰기 시작하였고 이 형태가 현대 국어의 대표적인 3인칭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김동인 일개인만의 자각에 의

한 산물이 아니라 개화기 시기 언중들과 작가들의 새로운 글쓰기 방식에서 요구된 고민의 흔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3인칭대명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당시의 다양한 문헌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개화기 문헌 자료의 검토는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8.
- 김미형, 『한국어 대명사』, 한신문화사, 1995.
- \_\_\_\_\_, 『문체와 문체 요인(1)』, 『한국언어문화』15호, 1997, pp.5-17.
- \_\_\_\_\_,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정신의 변화를 안고 흐른 국어의 역사』, 제이앤씨, 2012.
- 김성남, 『근대국어의 인칭대명사에 대하여』, 『국어사 연구』6호, 2006, pp.77-100.
- 김형철, 『3인칭 대명사에 대하여-「더」, 「그」를 중심으로-』, 『문학과 언어』2집, 1981, pp.1-12.
- 박진호,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50집, 2007, pp.115-147.
- 박현수, 『과거시제와 3인칭대명사의 등장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연구』20권, 2002, pp.117-145.
- 손성준, 『번역이라는 고투의 시간-염상섭의 번역과 초기 소설의 문제 변화-』, 『한국문학논총』67집, 2014, pp.205-246.
- 송미령, 『현대 일본어의 3인칭 대명사 「彼・彼女」에 관한 고찰- 현대 한국어와의 용법 대조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51집, 2004, pp.305-324.
- 안병희 · 이광호, 『중세국어 문법론』, 학연사, 1992.
- 안소진, 『소위 3인칭 대명사 「그, 그녀」의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학』38, 2008, pp.145-164.
- 양영희, 『중세국어 3인칭 대명사의 부류와 기능』, 『한국언어문학』59집, 2006, pp.85-110.

유창돈, 『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1978.

이기문, 『國語의 人稱代名詞』, 『冠嶽語文研究』 제3집, 1978, pp.325-338.

정은균, 「국문 서사체 서술 지문의 ‘-다, -라’ 종결 형식의 쓰임새와 문체 특징」, 『국어국문학』153, 2009, pp.81-104.

정호성,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10-1, 2000.

Bhat, D.N.S., Pronou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Lyons, J.,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Abstract

An Research on the 3<sup>rd</sup> Person Pronoun ‘ku’

Bak, Jae-Hee

This paper examined the origin of ‘ku’ as a 3<sup>rd</sup> person pronoun in the contemporary Korean. In the previous studies, ‘ku’ came to use a 3<sup>rd</sup> person pronoun in Korean when writers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including Dong-In Kim started with using ‘ku’ as a 3<sup>rd</sup> person pronoun in their writings. Unlike previous studies, however, this paper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pronouns which are included in closed-classes and close to a grammatical category rather than lexical categories.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is paper insisted that the reason that ‘ku’ came to use a 3<sup>rd</sup> person pronoun in Korean was not because the efforts of certain writers but because commonly used by normal people in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In particular, ‘ku’ was selected a 3<sup>rd</sup> person pronoun in three demonstrative pronouns ‘i, ku, tye( ‘je’ in the modern Korean). The proposal of this paper is based on two reasons. First reason i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nouns and second reason is the change of narrative methods in the early 20 century from the discourse-focused situation (speaker-hearer oriented situation) to the context-focused situation. In the discourse-focused situation, the demonstratives ‘i, ku, tye (je in the contemporary Korean)’ or ‘a unified forms with demonstratives and nouns’ are commonly used as pronouns but in the context-focused situation. these forms cannot be used pronouns. The narrative style in Korean was dramatically chan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For instance, the ending maker ‘-ra’ which is commonly used at the discourse-focused situation were less used from the late 19<sup>th</sup> century. Instead, the ending marker ‘-da’ which is commonly used at the context-focused situation were more used from the same times. The change of writing style caused people to find a new 3<sup>rd</sup> person pronominal word. Thus, among ‘i, ku,

tye(je)', this paper proposed that Korean people selected 'ku' as a new 3<sup>rd</sup> person pronoun because it contained a neutral meaning.

Key Word : 'ku', 'i, ku, je', '3rd person pronoun', 'people', 'context-focused situation',  
'discourse-focused situation', 'narrative method', 'contemporary  
Korean'

박재희

소속: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jaeheebak@cnu.ac.kr

|                                                                                      |
|--------------------------------------------------------------------------------------|
| <p>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br/>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br/>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p> |
|--------------------------------------------------------------------------------------|